

제60회 법의 날

축 사



2023. 4. 25.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를 되새기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현행 헌법과 함께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법을 만들고, 이성의 힘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정의와 이성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법의 지배가 확고히 뿌리 내릴 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자유와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토대, 즉 모든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 우리 헌법 제10조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원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진취적으로 구현할 때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회의 양극화 현상 역시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와 전환의 시기가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모으는 데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법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과정 및 입법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사의 총체적 표현이자, 우리 국민들의 가치지향이 담긴 헌법에는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지혜가 녹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법의 근본 이념과 가치에 더욱 주목하고, 이를 연구하고 구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서른다섯 살이 되는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실이 제대로 투영된 헌법재판, 그리고 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위한 법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